



미 증시, 중국 락다운 충격 등으로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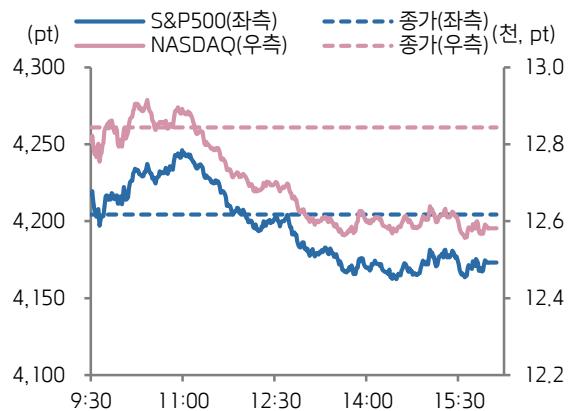
미국 증시 리뷰

14 일 (월)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휴전 협상에 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진 락다운 여파로 대형 기술주 위주로 급락. 지수별로 다우는 금융, 헬스케어 등 업종이 강세에 힘입어 보합권에서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애플(-2.7%) 등 기술주 약세로 2%대 하락. 개장 전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 협상 진전 소식에 S&P500은 0.3% 상승 출발했지만, 중국 아이폰 폭스콘 공장 중단 등 중국 락다운 여파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 이날 진행된 우-러 4 차 협상은 합의문의 기술적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내일(15 일)까지 협상이 중단(다우 +0.00%, S&P500 -0.74%, 나스닥 -2.04%, 러셀 2000 -1.92%).

업종별로 금융(+1.2%), 헬스케어(+0.7%), 필수소비재(+0.6%) 등이 상승한 반면, 에너지(-2.9%), IT(-1.9%), 통신(-1.8%) 등이 하락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 연출.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 소식에 5% 이상 하락하며 에너지(-2.9%) 업종 매물 출회. 한때 WTI 유가는 100 달러를 하회. 금융(+1.3%)은 이날 미국채 10 년물 금리가 14bp 급등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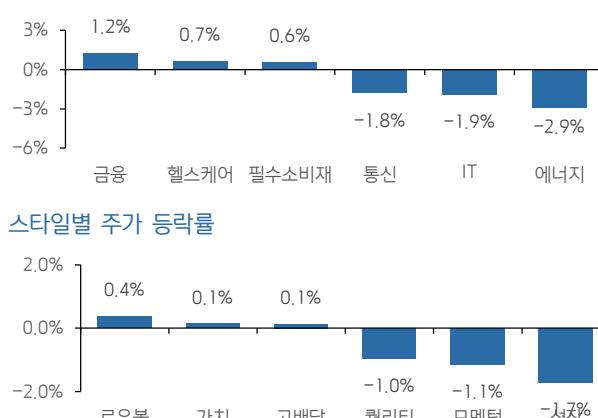
종목별로 테슬라(-3.6%), 애플(-2.7%) 등은 중국 락다운 여파로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급락. 월컴(-7.3%), 마이크론 테크놀러지(-4.7%) 등 반도체주들도 급락. 중국 소비 둔화 우려감 확대에 알리바바(-10.3%), JD.com(-14.8%) 등 중국 소비재들도 급락. 에어비앤비(-4.6%), 보잉(-0.4%), 유나이티드 에어라인(+0.4%) 등 리오프닝주들은 혼조세를 보였고, 나이키(-4.1%)는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중국 소비자들의 반대매매 우려감에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외환시장			
			변화	지수	가격	
S&P500		4,173.11	-0.74%	USD/KRW	1,241.99	+0.81%
NASDAQ		12,581.22	-2.04%	달러 지수	99.08	-0.04%
다우		32,945.24	+0.00%	EUR/USD	1.09	+0.05%
VIX		31.77	+3.32%	USD/CNH	6.39	+0%
러셀 2000		1,941.72	-1.92%	USD/JPY	118.18	-0.01%
필라. 반도체		3,047.50	-3.0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131.09	-0.67%	국고채 3년	2.280	+3.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740	+4.5bp
				미국 국채 2년	1.861	+11.3bp
MSCI 전세계 지수		663.53	-1.15%	미국 국채 10년	2.133	+14.1bp
MSCI DM 지수		2,840.05	-1.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85.66	-1.55%	WTI	103.01	-5.78%
MSCI 한국 ETF		66.82	-0.43%	금	1960.8	-1.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2.42%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8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42.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중국의 1~2 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실물 경제지표

주요 체크 사항

2. 유가 급락이 원자재 가격 베타가 높은 일부 시클리컬 업종들에게 미치는 영향
3. 1,240 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전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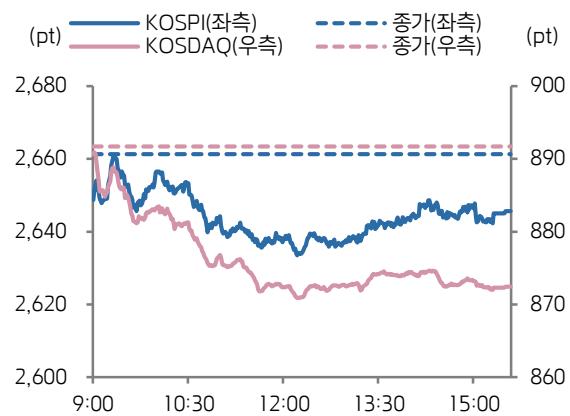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4 차 협상은 세부 추가 작업 등을 이유로 일시 휴회에 들어갔으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미가입, 러시아의 돈바스 친러반국 지역 병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양국간 의견차이가 좁혀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 최근 5 거래일동안 13% 넘게 급락한 WTI 국제유가(전일대비 -6.7%)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급등 경계 수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협상 의지는 양국 모두 높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극단 시나리오(러시아의 폴란드 영토 침방, 서방국가들의 군사 개입 등)의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기존의 관점은 유효하다고 판단.

그러나 전거래일 유가 급락의 또 다른 배경으로 중국발 수요 둔화 불안이 재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또 다른 고민 거리. 미국, 한국 등 주요국들이 위드 코로나 기조로 본격 전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지난 2 월 베이징 올림픽 종료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최근 신규 확진자수 급증으로 폭스콘, 유니마이크론 등 주요 IT 업체들이 집결된 선전 지역이 14 일간 락다운에 들어간 것도 제로코로나 정책에서 기인.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완화되고 있던 공급난이 다시 악화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해당 지역이 전면 락다운된 것은 아니며, 일부 공장가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 내 공급난이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 결국 현시점에서 불안감을 투영하며 주가에 반영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미 연준에서 집계하는 전세계 공급난 지수는 12 월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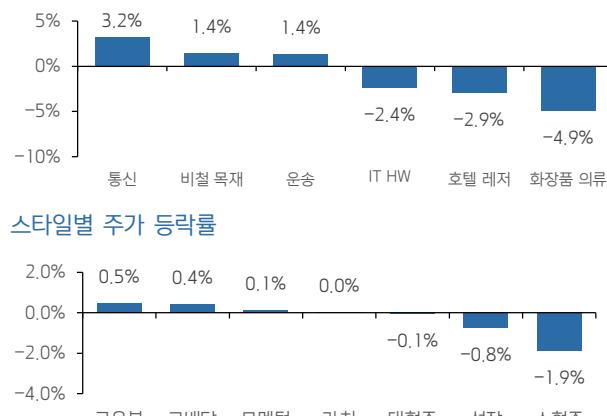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중국 락다운 불안, 미국 나스닥 조정 지속 등의 대외 불안 재료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또한 미국 10 년물 금리가 2.1%대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 월 FOMC 경계심리도 높아졌다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 될 것. 다만, 국내 증시는 과매도권에 진입한 상태인 만큼 장중 전해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뉴스 관련 뉴스플로우, 중국의 1~2 월 실물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시에는 지수의 하단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